

# 슬로시티 전주의 행보, 세계가 주목한다

### 캐나다 톨슨로이터에서 운영하는 토지·재산권 전문 온라인 뉴스에 소개

캐나다의 대표적인 토지·재산권 전문 언론이 빠르게 인한 발생하는 현 시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슬로시티 전주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다국적 미디어 기업 톨슨로이터가 운영하는 토지·재산권 전문 온라인 뉴스 '플레이스(place)'가 지난달 18일자로 '슬, 도시 급증에 따른 도시들의 새로운 목표 추구-평화

와 고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주 소개했다고 31일 밝혔다.

톨슨로이터의 워싱턴 특파원 캐리엘 바이런은 해당 기사에서 세계 여러 도시들이 건강하고 잘사는 도시를 위해 소음과 빠름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느리고 조용하게 가려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현대 사회의 병폐를 막기 위한 백신으로 '슬로시티'를 제시했다.

또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30여개국 200여개 도시는 교류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주요한 멤버도시 중 하나인 인구 6만여명의 대도시 전주시는 2010년 한옥 마을이 슬로시티가 된 이후부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는 매달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2026년까지 천만그

루의 나무심기를 희망하며 8차선 도로를 4차선 폭선 도로로 바꾸는 등 느리지만 시민을 위한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시는 앞으로도 전주다움을 지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후세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더욱 단단해지는 위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착실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0년에 전주 한옥 마을이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았고

2016년에 도시 전역으로 슬로시티 확대 재인증 받았다.

또 도심형 슬로시티로서 2017년도부터 매년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개최, 오순도순 슬로시티 전주학교 운영 등)으로 2018년 국제슬로시티 어워드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 부문 기관포상, 올해 6월에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정책 부문에 팔복예술공장과 전라감영 복원 정책사례를 공모하여 국제슬로시티어워드 대상에 해당하는 오렌지달팽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8년 호화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골프장 부지 매입 편의 대가 뇌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피해 8년여간 잠적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순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인정과 법적 적용 관련 잘못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김재 스파빌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던 부지 매입 편의를 바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 9월 잠적했으며,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댄스·테니스·골프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도피 생활을 했으며, 검거 이후 차명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



울긋불긋 연지아트홀의 단풍  
맑지만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달 30일, 정읍시 연지아트홀의 단풍이 잎사귀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형형색색 물들며 아름다운 가을밤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축! 전주매일 창간

**세상에 빛(안정적 전력공급)을  
이웃에 사랑(사회공헌활동)을  
전합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부인지사**  
지사장 문형석

# 전북 포함 8개 시·도 권역재활병원 미설치

### 평화당 김광수 의원 "의료 불균형 해소책 마련해야"

전북을 비롯한 8개 지역에 권역재활병원이 설치되지 않아 재활치료서비스에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권역재활병원이 9개 시도에만 설치돼 나머지 8개 지역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권역재활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활의료 수요 파악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에 즉각 나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역재활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인(인천)·호남(광주)·대전·강원·영남(경남 양산)·제주 등 6개 지역은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돼 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경북 경산)·충남(충남 아산)·전남(전남 여수) 등 3개소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의원은 박승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역재활병원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권역재활병원 3개소를 포함한 9개 시도만이 권역재활병원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지역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누구나 지역의 차이와 상관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역재활병원 이용에 있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권역재활병원이 미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재활 편의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 수요가 있는 지역을 즉각 파악하고,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또한, 권역재활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소비재기업 세계시장 공략

시, 4일까지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서 전시관 운영  
7-9일 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 지원  
5-10일 싱가포르·뉴델리에 무역사절단 파견 시장 개척

전주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을 돕고 나섰다.

시는 전주시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와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5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2019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에 전시관을 설치해 전주시역 6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한다.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는 20여만 명이 내방할 정도로 규모나 거래 성과 면에 있어 세계 3대 종합 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히며, 내방객도 사전 등록 바이어 위주로 구성되고 구매력 있는 바이어가 많이 참가해 성과가 기대되는 박람회다.

시는 참여기업에 박람회 참가비용(90%)과 통역비, 편도 항공료,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박람회에 참가한 소비재기업들은 전주시의 지원을 토대로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욕구 파악 등 해외시장분석을 통한 수출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

게 된다.

시는 또 오는 7일부터 9일까지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관내 6개 소비재기업의 단체 참가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소비재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최근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역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KOTRA지원단과 공동으로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간 전주시역 6개 업체를 '전주시 동·서남아 무역사절단'으로 싱가포르와 인도에 파견할 예정이다. 6개 참여기업은 싱가포르와 뉴델리 무역관을 방문해 무역관별 해외바이어 상담·발굴 및 현지 시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해외시장 조사비용과 바이어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의 절반도 지원한다.

참여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사업의 연계 지원으로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의 실질적 수출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쌀값 안정 위해 공공비축미 1388톤 매입

전주시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9년도 공공비축미 구매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전주농협 모악창고와 북전주 농협 성덕창고 등 4곳에서 2019년산 공공비축미 1388톤과 현재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 벼 346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 구매품종은 신동진·새알미 2개 품종으로 매입량은 전년 대비보다 5.2%(76톤) 감소한 물량이다. 이는 올해 배정기준인 전년도 매입실적(45%)과 벼 재배면적(25%), 벼 타작물 재배실적(30%) 등이 반영된 것으로,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이 높은 전북도내 타 시군에 비해 다소 줄었다.

특히 시는 올해 3차례 태풍(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제18호 미탁)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 및 흑·백수 피해 등 태풍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 품질 저가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피해 벼를 전량 매입키로 했다.

피해 벼는 건조벼로 매입하며 쪽정이 많은 점을 고려해 40kg 단량 포대에 알속무게 30kg, 800kg 단량 톤백에 알속무게 600kg 방식으로 매입하고, 품종제한 없이 매입 기일을 별도 지정해 피해농민 매입할 예정이다.

피해 벼 가격은 잡정 등의 A·B·C 3개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오는 12월중 확정되며, 연말에 지급된다. /김윤상 기자

# 4일 내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이용 신청 접수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정성환)은 2020년 상반기(1~6월)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이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4일부터 29일까지 25일 간이다. 공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월 정기주차권은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대상주차장은 종합경기장 등 13개 주차장이다. 접수 후 경합 주차장에 한해 추첨을 실시한다. 추첨일은 12월 6일이다. 비경합 주차장은 추첨 없이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단은 장기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균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배정방식을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 /김윤상 기자